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의식과 실태: 한국인의 양육문화

Current State of the Childrearing Culture in Korean Families

정 영 숙 · 박 영 애* · 이 경 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Chong, Young Sook · Park, Young Yae* · Lee, Kyung Hee**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capturing current state of Korean family life culture related to childrearing. The questionnaire developed for this study in order to delineate the values and perceptions related to general childrearing practices in present Korean families consisted of 73 items concerning prenatal care and child birth, child caring and rearing, and role division and value education. Subjects were mothers of young and primary school children currently residing in Seoul area and Choongchung province of South Korea.

Four hundred and four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nd the summary of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th the respect for children's individual needs concerning food, clothing, and health-related behaviors and the pursuit of convenience in everyday life on the part of mothers appeared to be important and valued by Korean mothers.

Second, the basic values and traditional meanings of family events such as prenatal care, children's birthday, especiall the first one, and family rituals and gatherings still appeared to be exsiting and influential, but there seemed to have been some changes both in their formal aspects and detail contents.

Third, meaningful differences in childrearing attitudes were found according to mother's place of growth, educational level, and her employment status.

Finally,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sexes and sex-role division in childrearing seemed to have weakened to some extent, which was particularly among mother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or residing in big cities.

I. 연구의 동기 및 목적

1997년은 문화유산의 해로서 일년 동안 음악 미술 등의 문화예술을 재조명하는 등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란 인

간생활 속에서 형성되므로 한 개인이 태어나서 길러지면서 교육받고 성장한 가정생활문화로부터 시초한 것이라 생각된다. 가정생활문화는 아동의 양육문화로부터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가정관리를 통하여 형성되는

문화의 내용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내용들이 예술문화의 소재가 되고 있다.

문화의 개념에 대하여 이광규(1980)는 문화란 오랜 세월을 통해 한 집단의 생활양식으로 전승되어 온 총체를 말하며 집단의 성원에 의해 계승되고, 인간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그가 속한 사회의 육아 양식을 통해 그 문화가 요구하는 바의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라 하고 하였다.

문화에는 인류 사회 전체에 공통된 보편 문화와 한 나라나 민족에 공통된 개별 문화가 있다. 한국인은 한국인만이 가진 문화를 갖고 있고 이 독특한 문화는 생활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문화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혹은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에게 가정 및 사회를 통해 전해지며 구체적인 생활에 배인 문화적인 행동 양식을 하나씩 배우면서 성장하는 동안 개별문화의 가치가 내면화 된다.

이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시대 변화와 더불어 문화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 정치,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매우 크고 빠른 변화를 가져 왔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가정생활에서 전통적 의식과 근대적 의식이 공존하는 상태이며 혼합되어 표출되고 있다(정영숙, 1995).

그러므로 아동 양육을 언급할 때 우리 한국인의 독특한 양육 문화와 그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단편적인 접근밖에 되지 못한다. 아동 양육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사회 문화가 자기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관습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이다.

가정학자는 생활의 내용과 실태에 대하여 빠르게 파악하고 변화과정을 이해하여 미래변화에 대처할 뿐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적합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 및 가족생활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태교 및 출산, 자녀 돌보기, 양육관련 역할분담, 자녀관 및 가치교육 등의 내용들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의식이나 행동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가 한국의 전통문화로부

터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는지 또한 시대배경에서 유입되는 타문화권의 내용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한국 가정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녀양육에 관련된 문화가 종적으로 또는 횡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아동양육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충남, 충북 지역에서 어린이집, 교회, 보육교사 교육원, 가정과교사연수원 등을 통하여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1997년 7월 16일부터 8월 2일에 걸쳐 응답자를 방문하여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그 자리에서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과 어린이를 통하여 어머니에게 보내 드린 후 돌려받는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모두 73 문항으로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내 용	백분율(빈도)
자녀의 연령	0 - 5세	57.6(279)
	6 - 11세	27.1(131)
	12세이상	15.3(74)
자녀의 성별	남	56.9(272)
	여	43.1(209)
어머니의 연령	30세 미만	16.1(78)
	30 - 39세	70.1(340)
	40세 이상	13.8(67)
어머니의 주성장지	읍면소재지	30.4(146)
	중소도시	27.5(132)
	대 도시	42.1(202)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3.9(19)
	고 졸	37.7(183)
	대 졸	52.0(252)
	대학원졸	6.4(31)
어머니의 취업상태	전업주부	45.0(206)
	취업주부	46.3(212)
	시간제일	8.7(40)
가정의 월평균수입	150만원이하	21.8(104)
	150 - 250만원	40.6(193)
	250 - 350만원	27.1(129)
	350만원 이상	10.5(50)

자녀의 연령 분포는 5세까지가 가장 많고 (57.6%) 11세까지가 그 다음으로(27.1%) 대부분의 응답 자녀가 유아 및 초등학생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은 주로 30대(70.1%) 이상이였다. 주성장지는 대도시가 가장 많으며 (42.1%) 교육수준은 대졸자가 과반수(52.0%)였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반반 정도였다 (45.0%, 46.3%). 어머니의 연령이 30대가 대다수인 점과 교육수준 및 취업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 등은 결과 해석시 참작되어야 할 점들이다.

2) 연구도구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자들이 양육 관련 문헌을 두루 고찰한 후 현재 한국사회의 가정내 양육문화를 비교적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제작하여 구성한 것이다. 태교 및 출산, 자녀 돌보기(식생활, 의생활, 건강관리 및 잠재우기 관련, 가정내 행사 관련, 보육시설 이용 관련 등의 하위영역을 포함), 역할분담 및 가치교육(양육관련 역할분담, 훈육, 자녀에 대한 기대 및 가치교육 등의 하위영역을 포함) 등의 각 영역별로 질문들을 만들고 각 질문에는 3-5개의 답지를 제시하여 본인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수 차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73문항이 사용되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PC를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각 양육 내용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이 사용되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양육문화 실태와의 관련은 카이 검증을 이용하여 관련있는 문항을 부분적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태교 및 출산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전통적 양육특징인 태교에 대한 조사에서 대상자의 약68%가 태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남편은 가끔 마음을 써주거나 (62.9%) 전적으로 지원해주으로써(21.5%) 남편의 84%이상이 태교에 참여하였다. 태교 중에 가장 중시한 것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 한 것(58.7%)이고 가려서 보고 가려서 먹기, 영양 섭취, 건강에 유의하기 등을 중시한 경우도 상당수 되었고 태교를 위한 교육이나 특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람도 8%정도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태교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28). 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고졸 이하의 어머니 보다 태교에 관한 관심과 실천 정도가 높았다(표 2). 이는 현대로 오면서 전통적 내용구성이나 미신적 방식의 태교보다는 태내발달 및 태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실증적 지식의 증가와 더불어 올바른 출산과 육아의 시작 단계로서의 태교의 중요성이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과정에서 교육수준이 보다 높은 집단인 경우는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자신의 고학력과 연관된 보다 양호한 환경적 여건 덕택에 그와 같은 마음가짐과 실천의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라고 볼 수 있다.

분만은 거의 전부가 병원에서 이루어졌고 (97.3%) 대체로 예정일 전후로 낳았으며 (59.3%) 대다수가 자연분만을 하였으나 (64.3%), 예정일 보다 1-2주 정도 조산하거나 (14.3%) 1-2주 정도 지연(23.3%)된 출산과

<표 2 >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태교에 관한 태도

빈도(백분율)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태교에 신경쓰지 않았다	5(33.3)	17(10.8)	17(7.8)	4(14.3)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4(26.7)	37(23.4)	36(16.6)	3(10.7)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 하였다	6(40.0)	104(65.8)	164(76.6)	21(75.0)
계	15(100.0)	158(100.0)	217(100.0)	28(100.0)
$\chi^2 = 14.17$	$df = 6$	$p = 0.028$		

제왕절개 수술도(29.5%) 많았다. 절반 이상이 유산의 경험이 있었는데 유산의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원치 않는 성 포함) 때문이 상당히 많았고(62.4%) 자연유산도 38%가 되었다.

출산문화는 시대 변화를 보여 주는데 병원에서의 분만이나 제왕절개 등은 가정 분만을 주로 하던 전통적 해산법(유안진, 1986)과 큰 변화를 보인다. 그럼에도 현대의 아동 양육에서 태교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한국인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태교정신이 상당 정도 계승되어 오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전통의 현대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유도분만이나 수술인 경우 대부분 예정일 전후나 건강상태에 맞추어 수술날짜를 정하지만 좋은 날을 택해 받은 사람도 12% 정도나 되어 출생연월일시 즉 사주에 의해 일평생의 길흉화복이 결정된다는 전통의 가치관이 반영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표본집단의 학력과 연령 특성들을 참작할 때 실제보다는 다소 낮게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자녀 돌보기

자녀 돌보기는 자녀의 식생활, 의생활, 건강관리, 가족내 행사, 보육시설이용 등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자녀의 식생활

전통 수유법인 모유먹이기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의 30% 정도가 먹이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백일 정도까지가 42%, 똥과 그 이후까지 수유한 경우가 28%였다. 모유수유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의 성별(p=0.02), 어머니의 주성장지(p=0.001), 어머니의 교육수준(p=0.000), 어머니의 취업여부(p=0.000), 가정의 수입정도(p=0.008)에 따라 달랐다.

여아보다 남아인 경우, 주성장지가 도시보다 읍면소재지일 때,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기보다 고졸까지일 때, 취업모에 비해 전업주부가 모유수유의 비율이 높고 수유 기간도 길었다. 아들에게 모유수유를 더 많이 하고 더 오래 한다는 사실은 어머니 자신들의 남아 선호 의식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유식은 대부분(90.1%)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시작되었다. 만들어서 먹인 경우가 가

<표 3> 자녀의 성별 모유수유

	빈도(백분율)	
	남아	여아
모유는 먹이지 못했다	59(24.8)	59(36.9)
백일 정도 모유를 먹였다	112(47.1)	57(35.6)
둘 또는 둘 이후까지 먹였다	67(28.2)	44(27.5)
계	238(100.0)	160(100.0)
$\chi^2 = 7.64$	df = 2	p = 0.022

<표 4> 어머니의 주성장지별 모유수유

	빈도(백분율)		
	읍.면소재지	중소도시	대도시
모유는 먹이지 못했다	26(22.0)	39(35.1)	52(30.4)
백일 정도 모유를 먹였다	41(34.8)	47(42.3)	83(48.5)
둘 또는 둘 이후까지 먹였다	51(43.2)	25(22.5)	36(21.1)
계	118(100.0)	111(100.0)	171(100.0)
$\chi^2 = 19.65$	df = 4	p = 0.001	

<표 5>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모유수유

	빈도(백분율)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모유는 먹이지 못했다	3(20.0)	35(22.9)	70(33.7)	11(39.3)
백일 정도 모유를 먹였다	6(40.0)	49(32.0)	106(51.0)	10(35.7)
둘 또는 둘 이후까지 먹였다	6(40.0)	69(45.1)	32(15.4)	7(25.0)
계	15(100.0)	153(100.0)	208(100.0)	28(100.0)
$\chi^2 = 41.3$	df = 6	p = 0.000		

<표 6> 어머니의 취업별 모유수유

	빈도(백분율)		
	전업주부	취업모	시간제
모유는 먹이지 못했다	36(20.0)	70(39.8)	7(20.6)
백일 정도 모유를 먹였다	75(42.6)	76(43.2)	12(35.3)
둘 또는 둘 이후까지 먹였다	65(36.9)	30(17.5)	15(44.1)
계	176(100.0)	176(100.0)	34(100.0)
$\chi^2 = 28.60$	df = 4	p = 0.000	

장 많고(48.5%) 사서 먹인 경우(25.6%)와 가족의 식사 중에서 먹였다는 비율(25.8%)이 비슷하였다. 대체로 아이가 먹고 싶은 양만큼만

먹도록 하지만(71.2%) 어떻게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양을 먹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25.5%)

네 가정 중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먹이기 위한 전쟁을 치루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식단은 가족원 모두를 고려하는 경향이 높고(56.9%) 다음으로는 남편 위주였다(25.0%). 외식은 한 달에 한 두 번이나(55.7%) 일주일에 한 두 번(18.9%)함으로써 외식문화가 비교적 보편적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소아 비만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듯이 먹게 한다면 응답한 경우가 3%에 불과한 것이라던가 일정 시간만 주고 그만 치우는 경우(23.1%) 보다는 좀 더 먹이려고 시간을 늘여주거나(29.8%) 아이가 먹는대로 따른다는 경우(47.1%)가 더 많은 것 등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먹는 문제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회용과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세탁기의 높은 보급율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이의 피부 건강이나 환경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70%에 가까운 아이들이 생후 일년 반까지는, 그리고 90% 이상의 아이들이 만 2년까지는 기저귀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다. 형겅이나 일회용 기저귀의 사용빈도는 어머니의 주성장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p=0.000$), 읍면소재지에서 성장한 어머니가 대도시에서 자란 어머니보다 형겅기저귀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000$), 그리고 취업모의 경우가 전업주부보다($p=0.000$) 일회용 기저귀를 더 사용하였다. 시간제 일을 하는 어머니의 경우 형겅기저귀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모유수유에서도 시간제일을 하는 어머니가 가장 늦게까지 젖을 주는 현상과 상호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7> 가정의 월평균수입별 모유수유

빈도(백분율)

	150만원미만	150-250만원	250-350만원	350만원이상
모유는 먹이지 못했다	17(17.7)	48(30.0)	39(36.5)	12(34.3)
백일정도 모유를 먹였다	42(43.8)	77(48.1)	37(34.6)	11(31.4)
둘 또는 둘 이후까지 먹였다	37(38.5)	35(21.9)	31(29.0)	12(34.3)
계	96(100.0)	160(100.0)	107(100.0)	35(100.0)
$\chi^2 = 17.23$		df = 6		p = 0.008

<표 8> 어머니의 주성장지에 따른 기저귀 사용 빈도(백분율)

	읍.면소재지	중소도시	대도시
주로 형겅기저귀를 사용하였다	85(71.4)	56(47.9)	85(48.9)
주로 일회용을 사용하였다	17(14.3)	24(20.5)	47(27.0)
반반씩 섞어 사용하였다	17(14.3)	37(31.6)	42(24.1)
계	119(100.0)	117(100.0)	174(100.0)
$\chi^2 = 21.30$		df = 4	p = 0.000

<표 9>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기저귀사용 빈도(백분율)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주로 형겅기저귀를 사용하였다	12(80.0)	104(66.2)	96(44.9)	15(55.6)
주로 일회용을 사용하였다	11(6.7)	14(8.9)	66(30.9)	7(25.9)
반반씩 섞어 사용하였다	2(13.3)	39(24.8)	52(24.3)	5(18.5)
계	15(100.0)	157(100.0)	214(100.0)	29(100.0)
$\chi^2 = 32.6$		df = 6		p = 0.000

2) 자녀의 의생활

주로 형겅기저귀를 사용한다는 어머니가 가장 많았고(55.4%) 주로 일회용을 사용한다는 경우는 22% 정도여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가정에서 형겅기저귀를 전적으로 또는 일

아이의 옷은 보기 좋은 것이나(13.8%) 세탁관리가 편리한 것(9.1%) 보다 활동하기 편한 것을 주로 고르는 것(71.8%)으로 보아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며 아동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표 10> 어머니의 취업별 기저귀사용 빈도(백분율)

	전업주부	취업모	시간제
주로 형질기저귀 를 사용하였다	113(62.8)	80(44.0)	26(70.6)
주로 일회용을 사용하였다	36(20.0)	43(23.6)	5(14.7)
반반씩 섞어 사 용하였다	31(17.2)	59(32.4)	5(14.7)
계	180(100.0)	182(100.0)	34(100.0)
$\chi^2 = 19.06$	df = 4	p = 0.001	

졌음을 알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전통식 포대기로 업고 다니는 것(38.5%)과 어깨걸이를 이용하여 안거나 업는 경우(33.2%)가 비슷하게 나왔다.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경우의 14%를 제외한 86%의 경우(손으로 안는 것 포함)가 어떤 형태로든 아기를 어른의 신체와 접촉시킨 상태에서 함께 이동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은 한시적인 용도를 지닌 유모차가 비교적 고가라는 점 외에도 아동의 심리, 정서발달에 대한 신체접촉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의 인지도가 높아진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는 유모차를 편하게 운반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비한 것과 아기 운반법에 대한 전통적 관습의 의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3) 건강

예방접종은 대부분(90.7%) 스스로 알아서 시기를 맞추었고 아이를 재울 때는 엎어 재우기(30.9%)보다 바로 눕혀 재우는 편이었다(69.1%). 엎어재우는 편이 아기의 두상을 보기 좋게 만들고 심장이나 근육발달에도 좋다는 서구식 양육방법의 도입으로 엎어 재우는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전통의 뿌리도 깊어서 상당수가 여전히 바로 재우고 있는데 현재로는 두 종류가 이 정도의 비율로 유지되는 것 같다. 아이를 재울 때는 조용히 혼자 잠들게 하기(13.8%)보다 업거나 안아서 재우거나(29.4%) 눕혀 놓고 토닥여 주거나(28.1%) 이야기나 자장가를 들려 주었다(28.7%). 아이를 따로 재우기 시작한 때는 유아원 입학 후가 가장 많고(56.6%) 다음이 초등학교 입학 후였다(21.1%). 그러나 그 이전부터 혼자 재우는 경우도 22%나 되는데 독립된 공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와 아울러 아동의 독립성,

자율성 및 부부생활의 프라이버시를 증시하는 서구적, 신세대적 사고의 일단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 육아방식은 부모와 같이 잠잘 뿐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에는 안겨 있거나 옆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서구의 경우 영아는 대체로 어머니와 신체적으로 분리되어 그들만의 침대, 또는 방에서 지내게 되며 신체적 접촉은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아를 다루기 어려워 독립성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유가효, 1995). 본 연구 결과는 신세대 어머니들도 비교적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유지하고 적어도 유아기까지는 자녀를 데리고 자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에 어린시기에 아이와의 피부접촉이 자녀의 감성을 자극하여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 따라서 좋은 인성의 소유자로 기를 수 있다는 정보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이의 백일이나 똥은 거의가 행사를 가졌고(97.3%) 선물로는 반지를 가장 많이 받았으나(77.3%) 현금도 꽤 있었다(14.6%). 다른 가정에 주로 해 주는 선물로는 반지가 여전히 가장 많으나(59.5%) 그 다음이 옷이었고(18.8%) 그 다음이 현금(17.5%)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최근으로 오면서 뜻깊은 날을 위한 선물로 물건보다는 현금으로 대체되어가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이의 생일은 주로 한식으로 차리는 경우가 64.9%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해주는 경우가 26%였다. 본인의 생일상은 어머니께서 차려주는대로 받던 주부 자신들의 경험에 비하면 아이가 원하는 메뉴로 해 주거나(19.1%) 또는 피자나 치킨 빵 등 간편한 주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류로 상을 차려 주는 것(6.5%), 또는 특별히 차리지 않는다는 경우(10.0%) 등은 전통적인 생일상을 차려 주지 않는 가정이 36%에 이르고 있어 가정내 행사 문화의 변화의 일단을 볼 수 있게 한다.

제사나 추도식 또는 생신 등의 가족행사에 어른만 참석한다거나 아이는 별로 참석시키지 못한다거나 아이가 좋은대로 하게 한다는 경우가 17%에 이르는 것 역시 전통 가족에서의 경우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수치는 본 연구표집 특성상 자녀가 주로 유아기나 아동기에 있는 가정의 경우를 나타

내는 것이라고 볼 때 공부에 바쁜 중고생들도 있는 다른 가정에서는 이 비율이 더 커질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집안 행사가 지나는 중요성과 구속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의미나 그 중요성을 인정은 하고 있으나 현대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 속에서 간소화되거나 변질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처음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한 때는 아이가 3세 이후부터가 가장 많았고(70.3%) 다음이 18개월에서 3세 사이였으며(22.2%) 평균 이용기간은 2-3년이 가장 보편적이었고(59.5%) 일년 미만은 31%였다. 이용 형태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53.6%)이 유아원이나 유치원(43.6%)보다 조금 많았다. 보육시설 이용 형태는 어머니의 주성장지(p=0.014), 교육수준(p=0.013), 취업여부(p=0.048)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에서 자란 어머니, 대졸 이상의 어머니, 전업 주부인 어머니의 경우 놀이방이나 어린이집보다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표 11> 어머니의 주성장지에 따른 보육시설 형태 빈도(백분율)

	읍.면소재지	중소도시	대도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다	61(58.7)	58(61.1)	58(43.6)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였다	43(41.4)	37(39.0)	75(56.4)
계	104(100.0)	95(100.0)	133(100.0)
$\chi^2 = 8.53$	df = 2	p = 0.014	

<표 12>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보육시설 형태 빈도(백분율)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이용	11(84.6)	79(58.1)	81(49.4)	7(35.0)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용	2(15.4)	57(41.9)	83(50.6)	13(65.0)
계	13(100.0)	136(100.0)	164(100.0)	20(100.0)
$\chi^2 = 10.09$	df = 3	p = 0.013		

3) 역할분담 및 가치교육
(1) 양육관련 역할분담

<표 13> 어머니의 취업별 보육시설 형태 빈도(백분율)

	전업주부	취업모	시간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다	60(41.4)	94(64.8)	15(53.6)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였다	85(58.6)	51(35.2)	13(46.4)
계	145(100.0)	145(100.0)	28(100.0)
$\chi^2 = 16.16$	df = 2	p = 0.000	

양육에 관련된 여러가지 역할을 가정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은 누구이며 특정 역할에 따라 역할 분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기 목욕의 경우 어머니가 주로 시켰고(57.4%), 퇴근 후 남편과 같이 하는 경우가 25%,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18%였다.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일 역시 어머니 혼자서가 54%,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35%,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12%였다. 외출시 아기를 주로 안는 사람은 남편이었고(47.4%) 교대로 안았다가 31%, 자신이 안았다가 22%였다.

자모회에는 전적으로 엄마가 참석한다는 경우가 61%, 아빠가 자주 참석하거나 시간이 되면 참석하기도 한다는 경우가 17%였다. 아빠가 쉬는 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 준다는 응답은 73%였고 워낙 관심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마지못해 함께 있어 주는 것이 27%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아동양육에 관련된 역할은 주로 어머니 담당이었지만 아버지도 역할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그리고 시간적 여유에 따라 참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는 역할은 목욕시키기, 병원에 데리고 가기 등 집 안팎에서의 자녀들 보기에서부터 자모회 참석과 같은 자녀교육 관련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여기에 아버지의 참여는 병원에 갈 때 함께 데리고 가주기, 외출시 아기 안고 다니기 등 특정한 상황에 한정되면서 비교적 그 역할 내용이 단순한 것에 한정되어 있거나, 또는 아기목욕 시키기라던가 여가시간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과 같이 비교적 그 내용이 자유롭거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에 한정되

는 경향이 있다. 자모회 참석과 같은 자녀교육 관련활동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하였다. 이는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의식과 참여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이 사실이긴 하나 아직은 특정한 유형 또는 범주의 행동에 국한되고 있는 면이 있음을 반영해 준다(아버지연구회와 한국생활과학회, 1997).

자녀훈육 관련 역할수행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요구 표현행동을 통해서 부모 역할 수행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이를 야단치는 일은 주로 어머니가 하고 자상한 역할은 아버지가 맡는다는 응답은 31%였고 어머니가 자상하고 아버지가 엄격한 편이라는 응답은 13%, 둘 다 엄격하거나 둘 다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14% 정도,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역할이 바뀐다는 응답이 42%였다. 아이는 요구할 일이 있을 때 주로 엄마에게 부탁한다가 34%, 주로 아빠에게 부탁한다가 27%,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어머니가 엄격하고 아버지가 자상한 가정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월등히(두 배 이상) 많게 나온 이와 같은 현상은 전통적 부모역할 개념이었던 '엄친자모'의 역할 구분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엄격함이고 어머니의 자녀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은 자애로움이라는 부모관(정옥분 등, 1997)과 오히려 상반되고 있다. 양친이 모두 엄격하거나(7.7%) 양쪽 다 그렇지 않은 경우(6.2%)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과 때에 따라 달라진다는 응답이 42%나 되었다는 것 역시 부모역할의 유별함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역할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 서구사회에서 부모 간 자녀양육 방식의 일치성 내지는 일관성이 강조되는데 비해 우리의 전통은 오히려 부모 간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고(류점숙, 1994) 부모 간 일치보다는 오히려 서로 반대되는 행동 특성을 지님으로써 상호보완적이기를 기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구분이 존중되고 준수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는 자상한 쪽으로 어머니는 오히려 엄격한 쪽으로의 변화를 보인 것은 여전히 상호적 역할 담당이라는 기본원리가 유지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전통적 양육방식과 일맥 상통하는 바가 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한국인의 심정주의 내지 인정주의(유가호, 1995)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버릇들이기

자녀의 예절 및 훈육은 주로 대인관계 및 가족상황내에서의 기본적인 규칙과 예절을 다루고 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를 맞게 하고(89.4%) 손님이 오신 경우에는 나와서 인사를 하게 하며(94.0%) 아이가 외출시에 반드시 얘기하고 나가게 한다고 응답하였다(86.8%).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예절 및 습관교육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모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고쳐하게 한다든지(68.1%) 식사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아이가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54.6%) 가정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경우(30.7%)보다 아이의 주장을 들어 본다(50.6%)가 더 높고, 식사는 식탁에 먼저 온 사람부터 시작하게 하며(13.6%) 각자 편리한 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도 45%에 이르며 아이가 부모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대로 두거나 더 크면 고쳐주겠다는 응답이 32%에 이르는 것은 예절교육의 다른 측면을 부각시켜 준다. 특히 어머니 자신이 아이 앞에서 시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생겼을때 그냥 시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34.4%)보다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리거나(55.1%) 시부모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드린다는가(5.3%)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행동하는 경우가 5%에 이르고 있는 것은 모델링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어른공경과 복종의 가치보다는 자기주장 표현과 적극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즉 그같은 행동들은 전통적 효와 순종의 규범과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점차 사라지고 부모자녀 관계와 효개념이 시대에 맞게, 현대인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편리한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인사하기와 외출시 이야기하고 나가기 등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 한정되면서 보다 기본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형식적 행동들을 가르치기는 비교적 쉬우나 일상생활의 모든 장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존댓말이라든가 먹

고 싶은 것을 참으며 기다려야 하는 식탁예절, 또는 싫어하는 것도 부모의 명령이면 따라야 하는 것 등처럼 보다 복잡하고 정서적인 행동들을 가르치기는 그보다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같은 행동들의 의미나 그 절대적 가치, 그리고 그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부모 자신들의 신념약화도 그러한 예절과 습관 교육의 노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상술된 본 연구의 발견들은 현대 한국 가정의 예절교육의 기본양상과 그 한계에 대해 나름대로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3) 자녀관 및 가치교육

부모의 가치관과 양육에 대한 신념은 양육 행동의 주요 결정요인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다른 사람 보다 뛰어나서 남들과 다르게 살기를 바라기(14.8%) 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남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기를 바랐다(85.2%).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도 좋은 친구들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40.4%) 하는 것이라든가 강인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졌으면(6.9%) 하는 것처럼 인성, 성격, 사회성 등에 관련된 것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고(47.3%) 다음이 건강(30.6%) 그리고 능력(공부, 소질이나 적성 등 22.1%)의 순으로 나왔다. 공부 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책읽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고(47.2%) 외국어, 컴퓨터 등의 실용적 능력과 기술(21.9%), 그리고 음악, 미술 등 예능 방면(21.3%)의 순으로 나왔다.

정직성, 성실성 또는 희생, 봉사 정신, 자기 방어, 형제간 갈등 해결방식, 성역할 개념, 부부간 상대적 지위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아이들은 다 가버렸는데 혼자 놀이감을 치우고 있는 자녀를 보면 걱정되거나(1.1%) 속상하기(7.8%)보다 기특하게 여겨지고(88.6%), 성적이 내려가더라도 잘못된 것은 정정하는 자녀를 보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8.1%) 보다 칭찬해 준다(91.0%). 아이가 바깥에서 다른 아이에게 맞고 오면 너도 때리고 오라고 하거나(25.5%) 때린 아이 찾아가기(3.4%), 상대하지 말라고 하기(3.7%), 상관하지 않기(5.5%) 등 보다 차라리 아이를 위로해 준다는 응답이 61% 였다.

이러한 발견들은 정직하며 참울성이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을 여전히 주요 덕

목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그러나 맞은 경우 보복내지 공격적 방어를 종용하거나(25.5%) 희생봉사적 행동을 보면서 속상하거나 걱정된다고 한 것, 또 정직함은 손해만 가져오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 등은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 내지는 조건부 정직성 또는 약삭빠른 이기심 내지 타산성, 가족이기주의의 발상과 개인이기주의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가르침들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 앞에서 대체로는 남편의 입장을 세워주는 편이지만(52.3%) 대동하게 행동하거나(37.4%) 자기주장을 더 강하게 한다는 응답(5.2%)도 적지않게 나왔다(42.6%). 이와 더불어 외가행사에의 참석(8.4%) 보다 친가행사에 더 많이 참석하지만(27.8%) 친가나 외가행사에 고르게 참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62.5%) 가정내에서 친족관계의 양계적 가치관과 부부간의 평등 개념이 증가해 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들 딸을 아들답게 딸답게 키우려고 하기 보다(28.8%) 아들과 딸을 별로 다르게 대하지 않거나(26.8) 개인차를 더 중시하면서 키운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44.4%) 전통적 남아선호 사상의 약화와 강화되어가는 남녀평등 사상이 자녀에 대한 기대는 물론 실제 자녀 양육행동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성역할 기대와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주성장지(p=0.048), 어머니의 교육수준(p=0.000)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p=0.02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에서 성장한 경우, 대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취업모의 경우는 성차이보다 개인차를 더 중요시하였다.

<표 14> 어머니의 주성장지별 성역할 기대 빈도(백분율)

	읍.면소재지	중소도시	대도시
아들답게 키우려고 한다	38(32.2)	33(29.5)	49(28.7)
아들 딸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	40(33.9)	26(23.2)	36(21.1)
개인차를 더 중요시한다	40(33.9)	53(47.3)	86(50.3)
계	118(100.0)	112(100.0)	171(100.0)
$\chi^2 = 9.58$		df= 4	p = 0.048

<표 15>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성역할 기대 빈도(백분율)

	중졸 이하	고 졸	대 졸	대학원
아들답게 딸답게 키우려고 한다	9(64.3)	59(37.3)	48(23.4)	5(18.5)
아들 딸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	3(21.4)	47(29.8)	45(22.0)	8(29.6)
개인차를 더 중요시한다	2(14.3)	52(32.9)	112(54.6)	14(51.8)
계	14(100.0)	158(100.0)	205(100.0)	27(100.0)
$\chi^2 = 27.61$		df = 64		p = 0.000

자녀 앞에서의 부부관계도 어머니의 주성장지(p=0.007)와 교육수준(p=0.022)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읍이나 면소재지에서 자란 경우와 고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에서 남편의 입장을 세워주는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들어주기 힘든 요구가 있을 때 아동은 과연 어느 부모에게 부탁을 하는가를 본 결과 대도시에서 성장한 어머니의 자녀보다 읍,면소재지 출신 어머니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온 것(p=0.027)은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행동 속에서 읽어낸 아버

<표 16> 어머니의 취업별 성역할 기대 빈도(백분율)

	전업주부	취업 모	시간제
아들답게 딸답게 키우려고 한다	66(37.7)	42(23.7)	7(20.6)
아들 딸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	35(20.0)	52(29.4)	11(32.3)
개인차를 더 중요시한다	74(42.3)	83(46.9)	16(47.1)
계	175(100.0)	177(100.0)	34(100.0)
$\chi^2 = 11.11$		df = 4	
			p = 0.025

<표 17> 어머니의 주성장지별 부부 지위 빈도(백분율)

	읍,면소재지	중소도시	대도시
남편의 입장을 세워주는 편이다	84(70.6)	60(54.6)	90(53.3)
대등하거나 더 강하게 주장한다	35(29.4)	50(45.5)	79(46.8)
계	119(100.0)	110(100.0)	169(100.0)
$\chi^2 = 10.04$		df = 2	
			p = 0.007

<표 18>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부부 지위 빈도(백분율)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대학원
남편의 입장을 세워주는 편이다	12(85.7)	100(64.5)	155(100.0)	14(51.9)
대등하거나 더 강하게 주장한다	2(14.3)	55(35.5)	94(46.3)	13(48.2)
계	14(100.0)	155(100.0)	203(100.0)	27(6.8)
$\chi^2 = 9.63$		df = 3		p = 0.022

지의 권위와 영향에 대한 신뢰와 의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개인과 가족의 상대적 중요성

개인과 가족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문항들에서는 자신의 일보다는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41.5%)이 가장 많았으나 두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39.4%)는 응답도 비슷하게 나왔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응답(19.1%)을 합하면 아이만큼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59%에 이른다. 이같은 비율은 주부들이 자신의 세계와 자기생활을 중시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신장되고 그 표현도 솔직해졌음을 반영한다.

<표 19> 어머니의 주성장지별 자녀의 요구 대상 빈도(백분율)

	읍,면소재지	중소도시	대도시
주로 엄마에게 부탁한다	36(30.5)	36(34.3)	56(34.6)
주로 아빠에게 부탁한다	39(33.1)	35(33.3)	31(19.1)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43(36.4)	34(32.4)	75(46.3)
계	118(100.0)	105(100.0)	162(100.0)
$\chi^2 = 10.97$		df = 4	
			p = 0.027

본 연구대상의 취업률과 고학력을 참작하여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자신의 일과 가족을 위한 일이 겹치면 대부분이 가족을 위한 일을 먼저 한다(89.1%)고 응답하였고 아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가정행사와 겹치는 경우도 가정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80.6%). 이는 응답자들의 의식 속에 아직은 가족우위의 가치관이 여전히 우세함을 드러낸다.

자녀 뒷바라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대학졸업까지(37.3%), 결혼할 때까지(23.7%), 직장잡을 때까지(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까지도 해야 한다는 응답이 10% 정도가 되었다. 부모의 노후생활에 대해 평소 아이에게 어떤식으로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부부 둘이서만 따로 살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응답이 26%, 자식들이 부모를 돌봐주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경우가 21%로 나왔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가 53%였다. 이 두가지 응답을 통해 노후부양에 관한 기대에 비해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은 그 상대적 비중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노후생활에 대한 소망과 계획에 있어서는 양면감정 내지는 상반된 기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양육 문화를 관찰할 수 있는 문항들을 통하여 현재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대가정의 양육문화의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녀의 식생활이나 의생활, 건강관리의 면에서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녀의 욕구를 존중해 주면서 어머니 자신의 편의도 도모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태교나 자녀의 생일, 뉘 등과 같은 가족내 행사의 경우는 그 전통적 의미와 가치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사회적 변화와 가족생활 방식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과 욕구체계의 변화 등을 수용하여 그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서서히 변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다양한 양육 영역에 걸친 여러 문항들 중 특히 태교를 했는지 여부, 모유수유 경험과 기간, 주로 사용한 기저귀 형태, 주로 이용한 보육시설의 형태, 성유형화 관련 양육태도, 자녀에게 보여 주는 부부(부모)간 상대적 지위 모형, 그로 인한 부모에 대한 아동의 행동차이 등을 다룬 문항들은 어머니의 주성장지, 교육수준, 취업여부, 그리고 자녀의 성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중 한가지 또는 몇가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유수유나 기저귀의 종류, 이용하는 보육시설 등의 경우는 어머니의 개인적 상황과 여건 및 편의주의 추구 성향 등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훈육과 예절교육 영역은 그와 같은 변인들에 크게

좌우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전통적 가치의 기본체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아이의 욕구나 주장을 배려하고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에 대한 기대 및 가치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었는데 한가지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성차(성,남녀의 상대적 지위)에 관련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남녀유별 의식과 엄격히 강조되어온 성역할 구분이 약화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는 비록 단편적이거나 실증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고학력의 대도시 출신 어머니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가정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녀양육에 관련된 문화가 종적으로 또는 횡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아동양육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 것이다.

주로 유아와 아동을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국가정의 양육문화와 가족생활의 단면들을 조사하여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 모두가 태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68%), 관심을 보인 부분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내용이였다. 전통적으로 중시된 태교내용보다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태교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행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출산문화는 대다수가 병원분만과 조사대상자의 2/3정도가 자연분만, 1/3은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이였고, 1/2정도가 유산을 경험하여 유산율이 상당히 높은 경향이었다.

3. 수유에 있어서는 전혀 모유를 먹이지 못한 경우가 30%정도였다.

4. 기저귀 착용은 주로 헝겊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로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1/5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5. 아기 포대기 사용은 많이 감소하였고(약 39%), 대신에 어깨걸이 사용은 증가하였다(33%).

6. 아기 재우는 방법은 엷어재우는 경우

(31%)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놀혀 재우는 경향이었다(69%).

7. 아기를 유아원 들어가기 전부터 엄마와 따로 혼자 재우는 경우도 한국의 습속에 비해 증가한 경향이었다(22%).

8. 아기의 백일이나 뉘에는 대다수가 축하 행사를 가졌고(97%), 선물은 다수가 반지를 주고 받는 것(77%)으로 나타났다.

9. 보육시설의 이용은 3세이후부터 많았으며(70%), 주로 어린이집(54%)과 유아원·유치원(44%)이었다.

10. 아기목욕은 주로 어머니가 시켰으나(57%), 아버지가 함께 목욕시키는 경우가 전통적인 습관에 비하면 증가한 경향이었다(25%).

11. 외출시 아기를 주로 안아주거나(47%) 어머니와 교대하였다(31%). 그리고 쉬는 날에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경향이었다(25%).

12. 양육태도면에서 아버지는 자상한 쪽으로 어머니는 엄격한 쪽으로의 변화를 보여 전통적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롭다는 선입견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13. 부모가 자녀에게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교육(인사하기)은 철저히 시키는 편이었다. 그러나 생활예절면(존대말 사용, 식사예절)에서 훈육이 약화되는 경향이었다.

14.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은 대부분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비슷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85%). 자녀의 인성, 능력, 행동지도면에서 어머니의 생각이 건전하고 올바른 것으로 나타났다.

15. 아이의 일을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경우가 더 많으나(42%), 자신의 일도 중요하다고 한 어머니가 상당히 많았다(59%). 이는 크게 변화된 결과라 사료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일보다 가족을 위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하였다(89%).

16.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태교, 모유수유, 기저귀 사용, 보육시설 형태, 성역할기대, 부부지위에 대한 것이었고, 자녀의 성에 따라 모유수유에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주성장지별로는 모유수유, 기저귀 사용, 보육시설형태, 성역할기대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의 월평균수입에 따라 차이를 보인 항목은 모유수유 항목이었다. 따

라서 어머니의 교육수준, 주성장지, 취업여부가 아동양육의 실제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준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아동양육과 가족생활에 관한 문화를 전통성과 근대성이 조화되고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시절부터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알고 그 장점과 뿌리개념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가정교과를 통하여 가정생활문화의 전달내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서구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문화가 검토나 평가없이 우리사회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문화를 관리하는 기관과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3. 사회교육의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생활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과가 사회교육에 다양하게 설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아동양육문화 형성에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어머니들이 주도하여 왔으나 아동발달 요구로나 시대적인 요구에 의하여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생활문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신양재, 김영주(1993). 한국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내용 분석(II), 대한가정학회지, 31(2), 159-175.
- 아버지연구회, 한국생활과학회(1997). 일상생활에서의 아버지 역할수행과 곤란도에 관한 연구, 전국 아버지대회 기념세미나 발표 논문, 137-166.
- 이광규(1980).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광규(1985). 동아시아사회의 가족, 복지사회 심포지움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39-49.
- 유가효(1995).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의 비교문화적 고찰과 방향 모색,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63-88.
- 유안진(1986).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영숙 등(1995). 신세대 가족의 가정생활에 대한 의식과 태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4(1), 13-30.
- 정영숙 등(1994). 전통적 가정생활문화에 관한 인식, 충북가정학회지, 3(1), 43-95.
- 정옥분 등(1997). 전통 '효' 개념에서 본 부모 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한국아동학회지, 18(1), 81-107.
- 조성숙(1994). 가족의 자녀교육, 심포지움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발표논문, 여성 한국사회연구회, 43-95.
- 통계청(1993). 한국의 사회지표 - 1993, 통계청.
- 최신덕(1985). 현대사회의 가족, 복지사회 심포지움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최영희(1996).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과학의 연구방향 - 인적자원 분야 - 1996년도 동계학술대회 복지사회와 생활과학 18-21.